

## 제 3 장

### 책 중의 책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걸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딤후 4:13).

이 장의 제목을 정하게 된 배경과 그 자료는 디모데후서 4:13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마메로스 감옥에서 처형 당하기 직전에,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로마에서 지중해를 건너 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책”(헬라어로는 복수형 타 비블리아 [τά βιβλία])을 가져오라고 부탁할 때, 바울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페이퍼”(paper)는 파피루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파피루스 줄기를 펼쳐서 엮어 짜면 글을 쓸 수 있는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책들은 틀림없이 탈무드나 랍비들의 주석서들이나 논집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헬라어로는 멤브라나스, [μεμβράνας])은 동물들의 가죽, 특히 양가죽 위에 쓴 것을 말합니다. 영어 단어의 “멤브레인”(membrane, 양피지)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라(μάλα)라는 것은 “매우”란 뜻의 부사어이고, 그것의 최상급

이 말리스타 인데 뜻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특히” 등을 나타냅니다.

헬라·로마 시대의 위대한 고전적인 문학적인 걸작들은 보통 양피지와 같은 튼튼한 것 위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양피지 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다 달라는 바울의 간청은 “여러 책들과 그 책”-세상의 모든 책들과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12에서 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는 책들이 고생스럽게 손으로 복사한 두루마리였던 시대에 그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가 주전 950년 경에 살면서도, 책들은 쏟아져 나오고 급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오늘날 인쇄소마다 수 천, 수 만의 책들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한 분야의 지식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현대의 화학자는 현재 화학에 관해서 출판된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현대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현대식 컴퓨터의 작업을 통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두었다가 후에 그들의 손가락 끝을 사용해서 다시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책들의 발행 속도는 오늘날 거의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수 백만권의 책들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 수 천, 수 백 가지의 책들 가운데서 한 권의 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경이 다른 어떤 책들에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구별된 책인가 하는데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성경은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계시합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만 우리들은 우리가 애타게 알고 싶어했던 문제들,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식의 참된 계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온 존재인가? 내가 내 주변에 보고 있는 피조물의 전체 세계는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인생에는 이유나 목적이나 종착점이 있는 것일까? 내 삶이 가을의 땅에 지는 낙엽과 같지는 않은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아직도 오지 않은 영원의 어둠 속에 빠져들면, 그 곳에 찬란한 빛이 있을 것인가? 죽음의 어두운 강을 지나면 생명이 있을까?

플라톤은, 아마도 성경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비할데 없이 훌륭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겠지만, 그는 이렇게 비탄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 작은 뗏목 만큼만 확실한 지식이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를 건너 알지 못하는 해변으로 갈 수 있게 해 줄텐데!”

그런(확실한) 지식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께서 성경 안에 갖고 계신 계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과학이 발견했던 모든 현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시고 계신 것들입니다. 원자와 별들과 물리학과 화학 등의 모든 비밀들—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 하셨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알맞는 시기와 때를 따라 점차로 배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 하셨다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시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세계를 마주 대할 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결



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가 바로 성경 책입니다. 항해사의 나침반이나, 비행기 조종사의 레이다판, 건축사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성경 책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자기의 예언서 30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21절).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주님께서는 그 목적과 계획을 당신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가지 놀라왔던 사실은 제가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런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 의 말씀” 등등의 구절이 2,500회 이상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살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거룩한 장들마다 직접 말씀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 우리들의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제하고 들어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의 의미를 기록하려고 하는 주관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내면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객관적인 진리는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계시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위대한 의미와 비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으며 결정적인 것입니다.

시편 119:89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러나 나는 하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걸터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 굳게 세우신 영원한 그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면 무슨 일인가 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끌어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책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10:6-9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말씀이 네게 가까와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비슷한 선언을 데살로니가전서 2:13에서 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끌어 내려져서 이 땅 위에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제 1세기 설교자들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들 손에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성경책을 들고”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글썬요, 수백 년 전, 즉 여러 세대 이전에는 책이라고 하면 두루마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두루마리를 읽으시려면, 두루마리를 감는 막대를 한 쪽으로 돌리면서 그 긴 기록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설교하던 그리스도교의 설교자들은 수레로 하나 가득한 기록들을 운반하고 다닐 시간도,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사야나 모세나 시편의 두루마리를 바로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막대기를 둘둘 말아가며 해당 구절을 찾아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잘라서 장으로 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책”이라고 부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최초의 기회였습니다.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이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들은 손에 책을 들고 서서, 성경에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완전하게 계시해 줍니다

성경책 속에서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는 고대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생애를 한편 생각해 보고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150년이 지날 때까지의 세속 문학 속에서 주님에 대한 언급이 단 세 곳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요세푸스(Josephus)라는 팔레스타인의 역사가는 『유대 고대사』(*Antiquities*)라는 책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짧은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서 조차도, 모든 학문적인 학자들 세계에서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언급을 포함하고 있는 소수의 구절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약 주후 100년 경에 쓰여진 타키투스의 『연대기』(*Annals*)에 보면, 주님에 관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타키투스는 자기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해야만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네로(Nero) 황제에 대한 자기의 기록 속에서, 네로는 로마에 불을 지르고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전가시켰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타키투스는 이 “그리스도교인들”은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악한, 중죄인의 이름을 본딴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주후 150년 경에 또 다른 라틴 계통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Suetonius)가 타키투스를 따라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네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그리스도교인



들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 줄을 쓰고 있습니다. -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서 유래하였다. 그는 중죄인이었고 악한 이었으며 나쁜 짓을 하였다. 유대 지방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초기의 세속 문학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 즉 성경책은 우리 주님을 완전하고 놀라운, 비교되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갈피 갈피에 살아 계십니다. 위대한 헬라어 학자였던 에라스무스 (Erasmus)는 최초의 헬라어 신약을 출판했었습니다. 그것은 공인본문 (Textus Receptus)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흠정역 성경의 대본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주후 1516년에 자신의 최초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에, 그가 서문에 썼던 말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글들은 그 분의 마음을 생생한 모습으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 한마디로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분을 아주 가까이 친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설령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다고 해도 그것들 보다는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성경책은 우리 주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야기로 말해진 말씀과 글로 기록된 말씀이나, 성육신 하신 말씀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들을 모두 말씀이라고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1을 읽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9: 11-13을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

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가지가 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경책 속에, 그 말씀 속에 살아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제게 있어서 그 말씀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말씀을 비난하거나 더럽힌다면, 나는 나의 주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쓰여진 말씀을 찬미한다면, 나는 나의 주님을, 성육하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육하신 말씀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과 실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개의 커다란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선포가 들려옵니다. “그 분이 오고 계신다.” 복음서에서 우리들은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에 싸이신 그 분을 바라보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분은 여기 계시다.”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글은 “그 분은 다시 오신다!”라는 축복된 소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구속사의 전개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전개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그의 구속적인 사랑이 펼쳐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습니다. 대홍수의 기간 동안에, 그 후손은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음으로써 보존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던 시기에 그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자에 대한 약속은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에게, 그 후에는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삼하 7:12-13). 그러자 시편을 지은 작사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 16:10).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기록하신 분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갈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2-6, 11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75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20:31).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목적이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분의 기록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0-21).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들은 마침내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선포에 이르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인격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마치 넓은 하늘을 가로 지르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하고 외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수 만명의 천사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은 영원토록 언제나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독일의 합리주의자들과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각조각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책을 손에 들고는, “이 부분은 위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원작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해서는, “이것은 개작이다!”라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체 성경을 잘게 썰어서, 마치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들을 칼로 자르듯이 해서는 그것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평은 아직도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매 음절과 문장마다, 매 절과 단락마다, 매 장과 각 책마다, 그 낱줄과 씨줄로 포함되어 짜여진 것이 구원 계획이며, 우리 주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부분은 위조이고, 또 다른 부분은 원작자의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부분은 개작이라고 한다면, 것처럼 일관된 주제가 어디서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묶어매는 그 주홍빛

실(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평학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성경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원과 구속의 기사를 지으신 저자이며, 이것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 성경은 예언 현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여러분들은 소위 예언이라고 하는 미래를 펼쳐보이고 드러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ἀποκάλυψις), 즉 “계시”라는 뜻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사라졌고, 어떤 것들은 소수지만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것들 중의 많은 종교가 종교 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즉,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 베다 송가(The Vedic Hymns), 공자의 논어, 달마경(the Writings of Vardhamana [Mahavira]), 이슬람 세계의 코란(Koran)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어떤 종교서적 속에서도 여러분은 예언이라는 현상-미래에 벌어질 일의 기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달마대사나, 고타마 부처, 또는 마호메트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미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미래를 펼쳐보려고 시도를 했었더라도, 그들의 끝없이 깊고 어찌할 수 없는 무지는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종말을 알고 계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눈빛 속에서는 내일이 오늘과 같은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 세기에 걸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자세한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운 시대, 혼



란의 시대,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언젠고 우리를 증오하는 누군가가 하늘에서부터 우리 위에 흠뻑 죽음을 퍼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과 계획이 계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우연하게, 의미나 목적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전능하심이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들은 중동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읽게 됩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들은 러시아의 발흥을 읽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미국 내에서 속해 있는 서부 연합(Western Confederacy)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짝은 쓴 맛을 내겠지만, 그 꽃은 달콤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움직이는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한 최후의 초읽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미래와 맞닥뜨리게 될 때, 바로 성경책만이 성스러운 약속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최후의 결정적인 시간에 지탱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죽음의 침상에서, 그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세계에 직면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나의 인류학 책을 가져다 주시오. 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유대류(有袋類)에서 진화 했는지를 읽어주시오. 그것을 내게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나는 크고, 영원한 미지의 세계에 직면해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역사상 어디에서든지, 누가 죽어가면서 “나의 화학 책을 내게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이 화학적 분석을 이루고 있는 그

공식들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물리학 책을 가져다 주시오”라든지, “내게 경제학 책을 가져다 주시오. 나에게 인간이 만든 위대한 이론들과 철학적 결과들을 읽어주시오” 하는 말을 들어 보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그 마지막 종교적인 때를 당하여, “내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찬 축복의 옛 책을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내게 날 빛보다 더 밝은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문학적인 묘사 중의 하나는 월터 스코트(Walter Scott) 경이 임종시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록하트(Lockhart)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그 책을 가져와라.” 그러자 록하트는 대답합니다. “아버님, 도서관에는 수 천 권의 책이 가득한데, 어느 책 말씀입니까?” 월터 스코트 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책은 꼭 한 권 밖에 없단다. 내게 바로 그 책을 가져오너라.” 그제야 록하트는 얼른 그가 말하는 책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는 그 위대한 스코트랜드의 서정 시인이자 소설가에게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터 스코트 경은 이 책 중의 책을 손에 꼭 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책은 꼭 한 권 뿐이다.” 죽어가며 외치는 그 현자(賢者)  
 “내게 그 오래된, 옛 이야기를 읽어다오.”  
 그 때에, 전혀 쇠하지 않을 날개짓하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들어 영광으로 가리.  
 책은 꼭 한권 뿐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 지구에서 우리의 하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